

제주사회복지신문

>2019년 10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44호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사회복지 희망으로 성황 이루다

지난달 16일 메종 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유공자 시상, 기부금품 전달식 등 풍성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종)는 지난 달 16일 메종 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희망으로 함께 한 20년, 복지로 물들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소속 제노색소폰앙상블의 축하공연에 이어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 기부금·품 전달식,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기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제주사회복지시설 정보 안내 모바일 앱 ‘제주복지

통’ 홍보부스 등 다양한 부스들도 운영됐다.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 총 41명에 대한 수상이 이뤄졌다.

부형종 회장직무대행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권리로서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의 시행을 비롯해 제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개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어 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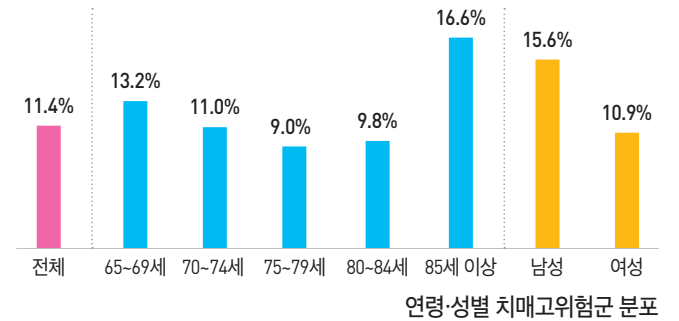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러한 노력이 성과

를 얻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오늘 스무 돌을 맞는 사회복지의 날이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여러 분야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 관계자들 덕분에 제주는 더 나은 복지사회, 보다 따뜻하고 돌봄이 튼튼한 사회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며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 의회, 사회복지 일선 종사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화보 4면>

돌봄서비스 노인 치매 고위험 많다

도광역치매센터 조사결과 11.4%에 달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치매 고위험군 독거노인들이 주소지 인근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달 20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도내 거주 독거노인의 치매, 우울 수준, 삶의 질 등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독거노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도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4,74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5월 제주시 지역까지 확대

해 완료했다.

조사결과 치매 고위험군은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15.6%, 여성 10.9%로 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85세 이상의 비중이 16.6%였으며, 지역별로는 서귀포시가 13.3%로 제주시(10.6%)보다 높았다.

치매 고위험군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연령, 학력, 경제수준, 노인우울, 정신행동증상으로 조사되었으며, 고령, 낮은 학력, 낮은 경제수준, 높은 우울감, 정신행동증상을 갖고 있을수록 치매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독거노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 경제, 노인 우울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면소개

종합 3면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법률·홍익

사회복지소식 5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업 화보

기획 7면
지역 아동 위한 꾸준한 멘토링 활동



▲ 지난 달 16일 메종 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퍼포먼스 모습.



제주사회복지현장의 흔적을 찾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의 날 20주년」을 기념하며 제주지역 사회복지 현장의 옛 사진을 찾습니다. 보내주신 사진 중 일부는 ‘제주사회복지 온라인역사관’의 자료로 등재해 제주사회복지의 발자취를 기억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내 용 1999년 이전 사회복지현장(사라진 건물 풍경, 프로그램 사진 등)

제출방법 신청서와 함께 방문, 우편 또는 파일전송 원본일 경우 스캔 후 반환해 드리며 스캔 또는 재촬영 사진은 웹하드 (ID : jejubokji3784, 비밀번호 : 702-3784) 또는 이메일(jejubokji@hanmail.net)로 전송
※ 신청서식은 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의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홍나나 팀장(070-4726-8823)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377회 임시회에서 공한지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쉼팡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공원 등의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 등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해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 발달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어린이공원 계획 수립 및 조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현재 어린이공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되고 있지만 아라지구, 삼화지구와 같은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만 집중돼 오라동

과 같은 원도심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쉼팡공원 개념의 쉼팡놀이터를 공한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조례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현재 제주에는 약 131곳의 어린이공원이 있지만 노형·이도·연동 등 신도시와 건입·도두·일도·삼도·용담 등 원도심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 제주포럼 성황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진>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정옥)는 중앙·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8월 29~30일 하워드존슨호텔에서 '2019년 전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 제주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 날 제주포럼은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을 비롯해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및 개인별지원팀 실무자 13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진행됐다.

'함께한 3년, 함께할 30년'을 주제로 진행된 제주포럼은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분과별 논의 및 브리핑, 토론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에 대한 정립의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최경숙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이제는 우리가 평가와 공정한 비판을 수용할 때"라면서 "구성원과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하는 예의와 배려,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윤리·도덕성이 중요한 덕목이다. 종사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도내 장애인 스포츠 경기 다채

오는 10월 제주도에 다양한 장애인 스포츠 경기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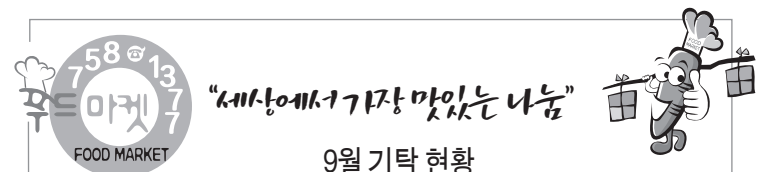
먼저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은 오는 4일 제주복합체육관 내 게이트볼장에서 '제12회 예천배 장애인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한다.

게이트볼대회는 도내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장애인 게이트볼 활성화, 장애인 게이트볼 선수 간 경쟁을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청각언어장애인과 여러 유형의 장애인으로 구성된 12팀, 총 130여 명이 참가한다.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상품권 30만원이 수여되고 2위부터 4위까지 각 트로피와 소정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제주시

가 주최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직무대행 양정심)이 주관하는 '2019년 제주시장배 장애인볼링대회'가 오전 10시부터 탐볼링장에서 개최된다. 제주시장배장애인볼링대회는 도내 장애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는 시각·청각·지체·지적·정신·신장 장애인부로 나눠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장애인기관·단체·시설별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관 홈페이지(www.tamnawel.com)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9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돈육 91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 1072개, ▲(주)쿵스토퍼 제주이도점=빵 129봉, ▲금산서당골=육류 7kg,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 142모,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라양계=계란15구 80개, ▲대한축산유통=돼지등뼈 60kg, ▲동원F&B 제주지점=동원식품 1953개, ▲뚜레쥬르 제주탐라점=빵 345봉, ▲모양=빵 360봉, ▲미인빵=빵 85봉, ▲비엔누아즈=빵 79봉, ▲신제주식품=식료품 3봉, ▲싱싱부식=김치 30kg, ▲정필이오메기=떡 180개, ▲참새방앗간=떡 414개, ▲파파무베이커리=빵 34개, ▲해맑은 떡방= 22개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 064-758-1377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올레안부전화 시범운영



동부종합사회복지관(오명복 관장)은 지난 8월부터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독거세대 대상자(노인, 장애인, 중장년 등)가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면 안부가 확인되는 형태인 '올레안부전화'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올레안부전화는 봉사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원거리에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안부확인 이 보다 원활하도록 보완했다.

특히 전산시스템으로 안부가 미확인될 경우 읍면 맞춤형복지팀 및 우리동네살충돌보미의 협조로 직접 안부를 확인하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레안부전화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일 1회 복지관의 올레안부전화(080-783-0101)로 전화를 걸 때마다 1000원씩 마일리지

쌓여 생활후원금으로 지원으로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오명복 관장은 "도내 최초 시범운영 되는 올레안부전화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제도권 독거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안부를 확인해 주도록 복지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매일 1회 안부 확인 보상으로 생활후원금이 지원되니 대상자와 기관 모두에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올레안부전화는 복지사각지대의 안부 확인에 보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2019년 8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 가 결 연 후 원	2,030,000	0
난 치 병 환 아 후 원	4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5,355,000	5,355,000
복 지 사 업 후 원	1,000,000	463,090
푸드마켓 후원	2,865,000	399,18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봉식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5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일 22일까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제주시 아라일동에 사업비 159억 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생애주기를 통틀어 지속적인 돌봄과 가족 지원이 요구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이용 프로그램과 보호기관의 부족으로 가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등록 장애인은 2019년 8월말 기준 3만 6200명으로 제주도 전체인구의 5.2%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3826명으로

등록 장애인 수의 10.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총 사업비 159억9200만원 상당을 투입해 연면적 4,680.5㎡,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제주시 아라일동 362-35번지에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와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 인프라 강화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건축 설계공모를 시행해 선정된 안을 바탕

으로 2018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공사 발주 및 입찰해 2021년 상반기 개관한다.

주요 시설에는 평생교육실, 부모자조모임실, 주거체험실, 프로그램실, 체육관, 다목적실, 실내놀이터, 직업훈련시설 등이 있다.

향후 발달장애인 대상자 사례관리, 장애인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양육 지원 및 가족 돌봄 지원, 바리스타 교육 등을 통한 직업상담, 평생교육 지원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기 위해 10월말까지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내 유사한 위험에 처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은 특정급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수급자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서 자동차를 미보유중인 가구, 일반재

산이 없거나 임차보증금만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 등 고위험이 예측되는 2,357가구다.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이 극히 어려운 빈곤계층으로 분류되는 가구는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계획이다.

고숙희 복지위생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탈북민 모자 사

망사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상시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무보수·명예직의 지역 인적 안전망 우리동네 삼촌 돌보미 1,286명을 위촉해 복지사각지대 1004가구를 발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1761건을 제공했다.

건물위생관리 기능경진대회서 임정태씨 대상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원장 한봉금)은 직원 임정태씨가 '2019 전국 건물위생관리 기능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사진 왼쪽>

임정태 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주관 '2019 전국 건물위생관리 기능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수여된다.

특히 이번 수상은 작년에 이은 2년 연속 대상이다. 또한 이번 대회는 엘린 근로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한봉금 원장은 "직원들이 성실하게 노력한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고 자랑스롭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소/식/마/당

(무순)

장애인 잠재적 능력 표현 도모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문정신)는 지난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주 2회 중증성인발달장애인의 의사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심리운동을 진행한다

2019 제주삼다수해피플러스 공모전에 선정된 이번 프로그램은 이용인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표현 할 수 있도록 신체 경험 등 다양한 주제로 이뤄진다.

보완대체의사소통 사업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경희)은 지난달 23일 아라동주민센터에서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마을조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AAC는 말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몸짓과 제스처 등으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보완수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총 10개 기관 및 단체와 협약체결이 진행됐다.

송편 빚기 행사 마련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달 11일 울곡어린이집(원장 문정순) 어린이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한가위 송편 빚기 행사를 진행했다.

문정순 원장은 "요즘에는 명절에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못 찾는 가족들이 많다."며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교류를 통해 서로 행복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목포 지역 공연활동



제주시희망원(원장 이경근)은 최근 전남·목포에 있는 해남희망원, 진성원, 목포공생재활원을 찾아 난타·중창 공연활동을 전개했다.

희망원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특별히 제주도 탐나라 타악팀 난타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해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토요학교 프로그램 운영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3GO(나누고 살피고 함께하고)후원회(대표 홍성광)의 지원을 받아 오는 11월까지 사례관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동네 토요학교는 문화적 경험의 기회가 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정화 학습 실시



제주몽생이그룹홈(시설장 윤문희)은 지난 7월부터 멘토링 활성화 프로그램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아동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환경정화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1:1 학습도 진행함으로써 환경정화와 학습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소/식/마/당

(무순)

어르신 도외여행 시간 마련



제주양로원(원장 김진우)은 지난달 3일부터 2박 3일 동안 국제라이온 스럽회 354-G지구 스완스라이온 스클럽의 지원으로 서울과 인천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장소를 직접 선정했다. 여행일정은 인천 차이나타운,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청와대를 돌아보고 정동극장에서 ‘궁·장녹수전’을 관람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금 전달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박차훈)은 지난달 4일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을 방문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금(1천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 나눔 현장체험



새마을교통봉사대 제주지역대(대장 김인구)는 지난달 5일 개인택시 30대를 이용해 사회복지법인아가(Aga) 아가의집(시설장 방원팔) 장애인 36명 등과 함께 도내 관광지를 둘러보는 ‘2019 사랑의 나눔 현장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 날 나들이는 교통봉사대원 택시차량을 이용해 다이나믹 메이즈 체험, 서프라이즈 테마파크를 관람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대인관계 적응력 향상



제주소나이그룹홈(대표 김완숙)은 지난 7월부터 매월 2회씩 ‘추억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대학생들과 그룹홈 입소아동들이 멘토와 멘티가 되어 함께 역사교육, 레포트, 오락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자존감 향상, 대인관계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치매어르신 전문적인 돌봄 실현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원장 김용덕)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센터장 박준혁) 교육팀 주관으로 매주 2회, 총 12회에 걸쳐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11월 제주도 광역치매센터와 치매 어르신에게 더욱 전문적인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뇌병변 장애 전문성 강화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은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의 뇌병변장애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나도 뇌병변장애 복지전문가Ⅱ’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사업은 뇌병변 장애의 이해, 인권, 생애주기에 따른 접근법 등의 이론교육과 종사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결혼이주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두호)는 구좌읍 지역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교육과정(미용 기초)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네일 아트 기초반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직업 교육 기회 제공해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 간 전문성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 8월 29~30일 제3권역(전북, 전북서부, 전남서부, 광주, 제주)소속 노인보호전문기관 간 제3권역 케이스 협업 컨퍼런스를 실시했다.

이 날 컨퍼런스는 5개 기관이 참가해 기관별 다양한 학대 사례와 개입방법 공유를 통해 직원 간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친목을 도모했다.

지역사회주민 신장병예방교육



사)한국신장장애인제주협회(회장 김우찬)는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제주지부 미디어아카데미홀에서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주민 신장병예방교육을 운영했다.

이 날 교육은 송정국 제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만성질환과 건강증진을 주제로 신장병예방을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과 자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신나는 여름캠프 펼쳐



제일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순희)는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송철희)와 한라적십자봉사회(회장 김혜선)의 지원을 받아 최근 신나는 여름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여름캠프는 센터 아동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힐링명상센터를 견학함과 아울러 신화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천연파스 250여개 전달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지난 8월 4회기에 걸쳐 다문화가정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천연파스 만들기 및 어려운나라 후원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천연파스 250여개를 지구촌희망 해외봉사단체 아시아 협력기구에 전달했으며 이 파스는 지난달 7일 해외의료봉사자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행복리더십 캠프 진행



김녕행복한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형자)는 지난 8월 13~14일 부산에서 센터 아동과 가족, 직원 등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회 행복리더십 캠프 ‘엠에스페리 뉴스타호와 함께 신나는 바다를 달려봐요!’를 진행했다.

이 날 행복리더십 캠프는 엠에스페리 뉴스타호에서 1박과 함께 송도해상케이블카와 태종대 열차체험 등으로 이뤄졌다.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업 화보

더 나은 복지제주 위한 화합 다지다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가 마련됐다. 먼저 지난 8월 30일 조천체육관에서 사회복지가족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2019 제주 사회복지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다.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 자원봉사자, 이용인 등 사회복지가족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는 단체줄넘기, 윷놀이, 이어달리기 등

으로 진행됐다. 이어 지난달 16일 메종 글래드 제주 호텔에서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기념식에서는 식전 축하공연에 이어 사회복지유공자 시상, 기부금·품 전달식,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기념 퍼포먼스와 함께 다채로운 홍보부스가 운영됐다.



- ① 체육대회 참가자 단체사진
- ② 체육대회 림보
- ③ 체육대회 윷놀이
- ④ 사회복지 공헌패 전달
- ⑤ 기부금·품 전달식
- ⑥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문 낭독
- ⑦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홍보부스
- ⑧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인사



시론

갈등

갈등은 인간관계나 일상이 복잡하게 뒤얽혀 풀기 어려운 일이 지속하거나, 상충하는 사고로 고민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이다. 갈등은 생명체처럼 생성 소멸하는 과정을 겪으며 무수한 인과관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갈등은 원초적으로 유아기 모성애를 독점하려는 형제자매 갈등에서부터 시작된다. 성숙하는 과정의 자아 충돌과 인간관계 형성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의 여건 위에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

인간은 성숙하면서 내적 갈등을 겪는데, 이는 인간의 기

자괴감 등 갈등요소로 작용

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는 데서 출발한다. 가치에 대한 기대와 자신의 능력 부족에서 오는 박탈감, 자신만이 느끼는 자괴감과 피폐함으로 갈등이 생긴다.

내적갈등은 자신이 겪는 내면 갈등과 가족을 비롯한 개인 간 갈등이다. 가족 구성원의 집합체가 모여 사회를 구성한다. 혈연·지연·학연과 이웃 관계가 취와 등나무처럼 뒤얽혀 사는

사회는 각자의 지위와 역할이 달라 항시 갈등요인을 잉태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 부재나 왜곡으로 불신이 생기고 이것이 확대되면서 관계 형성에 갈등을 겪게 된다. 또한 개인 간 갈등은 사실관계 부정이나 다른 주장을 고수할 때 발생한다. 이는 부자·형제·고부·부부간 관계상 갈등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구성원 각자의 권위와 역할 기대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갈등이 깊어지면 가출이나 이혼과 같은 가정해체나 우울증 자살 같은 극단적 결과로 표출되기도 한다.

내면의 가치와 외부적 요인이 결합으로 생성되는 갈등은 어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적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가족이라 해도 구성원의 천성이 다르고, 부부간은 성장해온 배경이 달라 원초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갈등의 발생과 소멸과정은 비슷하다. 무수한 인자가 복잡하게 작용하는 갈등의 에너지를 사랑과 이해로 전환해야 하지만 그 절차나 방법은 어렵다. 갈등은 당사자가

해결치 못하면 법의 심판으로 소멸하기도 하고 가정이 파탄되거나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당사자 간 합리적 노력 최선

갈등 해결은 당사자 간 합리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차선으로 새로운 의사소통 통로를 만들고 역할과 대를 통하여 타협과 회피로 갈등을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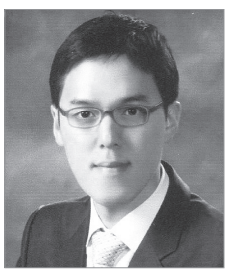
예로부터 동양 문화권에서는 내적 갈등을 푸는 방법으로 덕徳의 접근법을 강조했다. 상대방에게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 폭넓은 배려와 아량을 베푼다. 갈등 예방을 위하여 파괴적으로 발전할 만한 구조나 문화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익순
수필가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65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우리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개인 간의 가해, 피해 행위에 대해 가해자를 국가 형벌권으로 처벌하고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손해배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국민의 신체와 재산

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 대해 일정한 경우 피해자를 도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규정한 법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며 특별히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해놓은 것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심리치료비를 지급하고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에게는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급하려는 목적이 있다. 경제적 지원 대상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 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이며 검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 요건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하며 심의위원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범죄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에는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검찰청에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제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064-756-7004)로 연락을 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칼럼

순한글 이름 뜻있고 예쁘다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는 기호다. 평생 입고 다니는 의복과 같은 것으로, 선천운이 나빠도 좋은 이름으로 후천운을 복돋울 수 있다는 게 성명학의 원리다. 옷을 바꿔 입듯 개명으로 인생길을 보완하고 역전시킨다는 믿음이 그래서 나온다.

원래 음양오행의 법칙과 수리와 음운 그리고 자의(字意) 자형(字形)과 사주(四柱)가 성명학의 본령이다. '이름과 나는 공동운명체'로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본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명학에 합당하는 이름을 지어 주려 애쓴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작명을 위해 내로라하는 철학관을 찾는다.

작명 인식에 놀랄 만한 변화가 나타난 지 오래다. 일본식 이름으로 특히 여자의 경우, '子, 姬, 玉' 자 이름이 얼마나 많았는가. '영자, 순자, 복자' 또는 '순희, 복희, 명희', '순옥, 혜옥, 영옥' 등의 이름이 흔한 게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작명도 옛말이다. 요즘 2,30대에 그런 식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풀어 쓴 우리말 오묘한 매력 담겨

의외로 순한글 이름이 많다. 문인협회 주소를 뒤적이는데 '김돌담길'이란 이름이 눈에 띈다. 놀랐다. 축구대표선수였던 '윤빛가람'을 기억할 것이다. 빛이 강물 위에 비친 정경은 얼마나 눈부신가. 예명일 텐데 가수 '윤시내'는 어떤가.

별의별 이름이 다 있다. 제일 눈 맛을 돋우는 게 '강 물'이었다. 성을 빼면 이름은 '물'로 외자다. '별'이란 이름도 있을 법하다. 뜻이 예쁜 순우리말들이 많다. 한글이 표의문자가 아니라고 지나칠 일이 아니다. 알고 나면 풀어쓴 우리말의 오묘한 매력에 빠져 든다. 한글 식이면서 뜻있고 예쁘면 더욱 좋지 않은가.

예를 들어 보겠다. 가람슬기(강처럼 푸르게, 슬기롭게), 나예(나비처럼 예쁘게), 누리알찬(세상을 알차게 만드는 사람), 보예(보람차고 예쁘다), 다솜(따뜻한 사람), 아람(농익어 탐스레 익는 과일), 윤슬(햇빛이나 달빛이 비쳐 반짝이는 물결), 예다움(예쁘고 정다움), 세리(큰 뜻 세우고 살아가리)...

순한글 이름을 들으면 귀 솔깃하다. 어느 선생님은 딸 쌍둥이 이름을 '정들다, 정나리'라 했단다. 쌍둥이 자매가 현직 교사다. 국어 선생이라 아마 철학관 걸음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좌으뜸, 김하나, 강나리' 하는 이름도 이웃에 있다.

파격적 작명인데, 예쁘고 부르기 쉬우니 좀 좋은가. 순한글 이름을 짓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뭐라 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진 엄마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사전엔 뜻있고 예쁜 말들이 수두룩하다.



김길웅
칼럼니스트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 ③

제주청소년봉사단(교육·학습)

지역 아동 위한 꾸준한 멘토링 활동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직무대행 부형종)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청소년봉사단(단장 고정숙)'은 지난달 21일 제주시 한림읍 한수폴도서관에서 영어책을 활용한 또래 멘토링 활동을 실시했다.<사진>

이 날 봉사활동은 제주청소년봉사단원들이 멘토가 되어 한사랑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1:1 영어책 읽기와 조별활동으로 진행됐다.

제주청소년봉사단은 2010년 11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됐으며 현재까지 누적회원이 총 370여 명에 달한다. 제주청소년봉사단은 매년 온라인으로 자원봉사신청을 한 학생들 중 총 60여명을 멘토로 선정해 지역아동센터 아동

들을 대상으로 주 1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멘토들에게 상·하반기 각각 1~2회씩 영어책 읽는 방법, 봉사활동 프로그램 기획 방법, 청소년봉사자의 봉사활동 자세 및 목표 설정 등의 내용으로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해 멘토 스스로 멘티들을 위한 책을 선정하고 활동내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고정숙 단장은 “청소년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청소년봉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봉사활동이 의무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제주에너지공사 한방진료 봉사활동



올해 창립7주년을 맞이한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태익)는 지난달 21일 한림읍 금악리 노인회관에서 대

한적십자사 제주특별도지사와 함께 한방진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한림읍 금악리 60세 이상의 주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 온새미들 봉사단과 더불어 탐라적십자봉사회, 참살이봉사회, 사랑나눔봉사회 등 도내 여러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KT&G 제주본부(본부장 양상범)는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연)와 협업해 하계 방학기간 제주북초등학교 학생 대상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초등학교들에게 국어와 수학을 가르쳐주는 형태로 운영됐으며, KT&G 제주본



부는 멘토링 활동 참여 대학생들에게 활동 장학금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지원금 전달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송철희)와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대표 김호철)는 지난달 21일 제주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氣 UP! 스케일 UP!'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주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공모전에서 당선된 3개 기업을 발표하고 지원금 전달

식을 가졌다.

최우수기업으로는 주식회사 제주마미가 우수기업으로는 풀개협동조합, 주식회사 파란공장이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다. 선정기업에게는 총 6천만원의 성장지원금과 함께 전문가에 의한 사업진단과 컨설팅이 지원된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소개 ③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장애인 특성 고려한 일자리 제공

제주지역에는 10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호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 확대를 돕고자 시설과 함께 주요 생산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춘강장애인근로센터'를 소개한다.

▲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소개

춘강장애인근로센터(원장 이규봉)는 198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주도 최초의 직업재활시설이다.

센터는 '지역사회에 생산적 동반자,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를 미션으로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종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사업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사업은 손

기술이 뛰어난 장애인들의 직업적 성취도가 높은 사업으로 정품 수준의 품질관리와 정품대비 50% 미만의 착한 가격을 자랑한다.

현재 제주대학교병원(47대)과 건강관리협회(46대)에 복합기 임대 운영을 하는 등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지정받아 복합기 임대부터 유지관리까지 더욱 체계적인 디지털 O.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섬유사업팀

섬유사업팀은 여성장애인들의 한복기술 습득의 욕구에 부합해 2000년에 시작했다.



▲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제품.

한복기능사 자격 취득과 전국기능대회 수상 등을 통해 솜씨를 인정받은 바느질로 천연염색 의복과 침구류 생산은 물론 요양시설의 유니폼과 어린이집 앞치마 등 단체 주문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 JDC 면세점 고객 선물로 제공된 1만개의 제주이미지 가방은 전국 각지에서 호평 받았다.

▲ 호텔세탁서비스 사업

호텔세탁서비스 사업은 1989년 개원 당시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직무로 도내 유명 호텔과 최장 10개월의 세탁물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안정적인 서비스와 최고의 품질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했다. <제품문의 : 064-702-785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정보안내 모바일 앱

누구에게나 통(通)하는 복지 ‘제주복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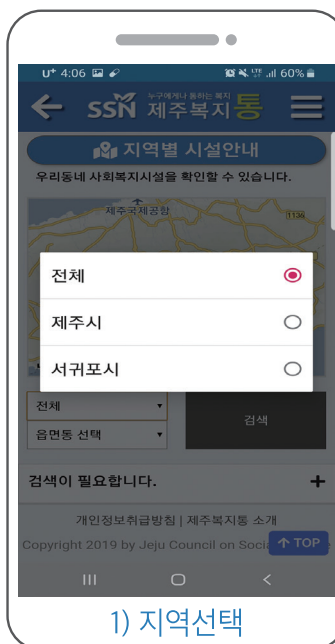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음성통화·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한번에 연결이 가능한 맞춤형 복지포털 모바일 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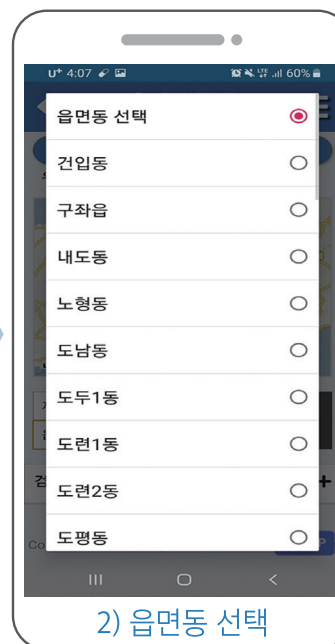
※ 제주복지통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복지통
이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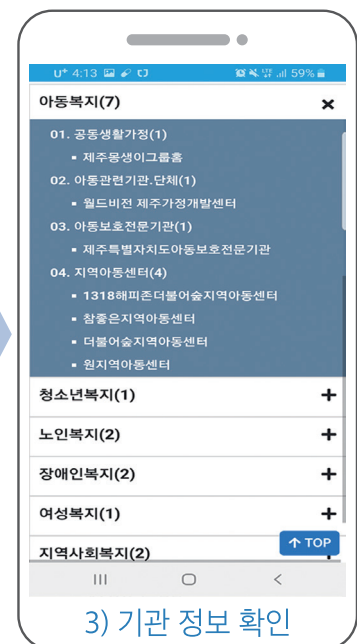
지역별 시설안내



1) 지역선택



2) 읍면동 선택



3) 기관 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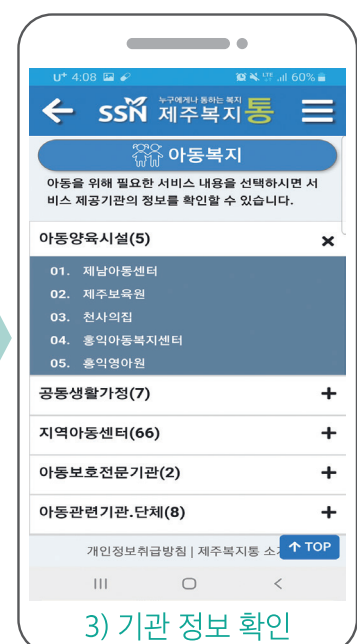
분야별 시설안내



1) 분야별 서비스 선택



2) 서비스 기관 선택



3) 기관 정보 확인

제주복지통
한눈에 보기

- 1,084개 분야별·지역별 사회복지시설정보
- 일자리·육아·중독·주거·사회보험 콜센터
- 노인·아동·장애인·가정·학교폭력 긴급전화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 온라인 식품기부 푸드뱅크
- 무료법률상담 법률상담터

•문의 : 702-3784